

블랑팡, 2017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을 기념하다

블랑팡(Blancpain)은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유엔해양법국(DOALOS)과 공동으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 행사를 개최했다. 블랑팡이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 그리고 유엔해양법국(DOALOS)과 협력한 것은 올해가 4년째이다. 유엔 총회 빌딩의 방문자 로비에서 2017년 6월 8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6월 8일은 유엔환경개발회의(Earth Summit)에서 제안된 1992년부터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채택된 2008년부터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 날에는 전세계가 바다의 존재 자체를 기념하고, 바다가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한다. 기념의 의미로, 그 일환으로, 유엔사무국 법률실(OLA)과 유엔해양법국(DOALOS)이 주축으로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한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로, 행사는 6월 5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유엔대양회의(Ocean Conference)와 동시에 열리게 되었다. 세계 해양의 날 축하 행사에는 주지사들, 장관들, 그리고 각국의 사절단들과 스웨덴의 공주들을 비롯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였다.

유엔 법무실을 총괄하는 사무차장, 미겔 드 세르파 수아레즈(Miguel de Serpa Soares)의 환영사에 이어 유엔 총회 의장의 피터 톰슨(Peter Thomson)과 자연자원방어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의 국제 해양 프로그램 디렉터직의 리사 스피어(Lisa Speer) 또한 공해연합(High Seas Alliance)과 함께 이 행사를 지지했다.

블랑팡 미국 지사의 브랜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겔리(David Gely)가 브랜드와 바다와의 연관성, 그리고 해양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 연설했다. “블랑팡의 DNA 중에서 우리는 낙관론, 장기적 비전, 그리고 혁신이라는 중요한 3가지 근본 원칙 덕분에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2014년 이래로 블랑팡이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 자원 보존을 위해 하는 활동들을 모두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 이래로 블랑팡은 10개의

주요 과학 탐사대와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해양 보호 지역 면적이 2 배로 늘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상을 받은 몇몇 다큐멘터리 필름, 전시회, 출판물 등을 공개하고 있다.

블랑팡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라: 해양 생태계"라는 주제로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는 2017년 해양 컨퍼런스 사진전(2017 Ocean Conference Photo Exhibit)을 후원한다. 이 사진전은 그 동안 보여지지 못했던 해양 생물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의 활동, 해양 생물, 그리고 바다간의 긴밀한 관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전시회는 결국 세계 해양의 날과 유엔대양회의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노력에 대해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스페셜 게스트로, 리처드 브랜슨(Richard Branson)과 유명 록 뮤지션 키스 리처드(Keith Richards)의 딸이자 프로젝트 앰배서더인 알렉산드라 리처드(Alexandra Richards)가 참석했으며 브랜슨은 본인이라 메르 웨이브 워크(La Mer Wave Walk)를 위해 만든 파도 모양 조각상과 함께 유엔 총회 의장을 소개하였다. 웨이브 워크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아티스트들과 인플루언서들이 세계 해양의 날에 뉴욕시 전역의 다양한 위치에 파도 모양의 조각상을 설치한 프로젝트이다.

유엔 오케스트라와 피지 공화국 군대의 드럼밴드, 그리고 뉴욕에서 활동하는 밴드 Vassals 이 연주하는 라이브 음악회도 열렸다.

해마다 세계 해양의 날의 저녁에는 전통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블루 컬러 조명으로 밝혀진다. 블랑팡은 세계 해양의 날 기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었으며,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블랑팡에 대하여

블랑팡은 1953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를 탄생시키며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러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블랑팡은 해양 환경 보존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중요한 과학적 프로젝트, 해양 탐사 캠페인, 수중 사진, 환경 관련 포럼, 일반인 대상 전시, 출판물 및 웹사이트 제작 등을 통해 이러한 이슈들을 알리는 데에 기여해왔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블랑팡 브랜드의 노력이 바로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입니다.